서울大學校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鎬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大學校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 (서)라-137號 /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3년 10월 1일 第 187 號

登山大會 이달 17일 樹木園서 거행

— 아침 9시 冠岳캠퍼스 대운동장서 등록절차 밟아야 —

▲親睦登山대회는 마냥 즐겁고 흐뭇하다. 오랫만에 學窓시절을 회상하면서 옛이야기를 나눌수 있는 자리란 그리 쉽지 않다. 母校恩師와 家族등 3천명에 가까운 人波에 묻혀 가을 한낮을 心醉할수 있어 더욱 좋다. 〈사진·農大樹木園에서의 등산대회〉

冠岳春秋

開校기념 登山大會에 參加하자

오는 10월15일은 우리 母校의 제47회 개교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하여 10월17일, 작년에 이어 열세번째의 登山大會를 갖는다.

여러가지 기념행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登山大會만큼 20만 동문들의 친목과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자리는 드문 것 같다.

그것은 이 대회에 참가해본 동문들의 한결같은 소감이다. 한번 참가했던 동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한해도 걷지 않고 참가하고 있다. 처음에는 혼자 나오다가 가족을 동반하게 되고 이웃 동문에게 권유하여 함께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지방에 있는 동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문들조차 해마다 이날에 맞추어 상경하거나 귀국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참가 인원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 작년에는 근3천명이 참가했으며 지금까지 準人員이 3만명을 넘어섰다. 이 등산대회의 뜻이 자리잡히고 있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한다.

山은 남보를 길든 벙로 사람을 닷스린다고 했다. 山은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몰고 끄대기에는 神을 모신다고 했다. 그리고 山은 답답하면 솟아서 높은 봉우리가 되고, 목소리가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고 했다.

詩人 金珖燮의 「山을 되뇌지 않더라도 山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귀가 따갑도록 흐뜨갓럽게 조잘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아주 조용히 우리에게 일러준다. 우리의 生과 死를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山은 인생을 「死에서 逆算하여 살아보게 하고 또 거기에서 「生을 다시 산는 법을 알려준다.

그래서 登山大會의 그 날에 우리는 한없이 경건해지기도 하고, 또 티없이 활짝 웃으며 평평히 넓치던 학창시절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20만 동문들이여! 오는 10월17일 우리 함께 이 登山大會에서 만나자!

그날은 일요일, 잊지 마시고 가족을 동반하고 이웃 동문을 권유하여 母校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 아침 9시까지 모이시라! 결코 후회하지 않으리라. 더구나 그날의 등산코스는 우리 母校의 뒷산이다.

冠岳山 入口에서 출발하여 母校의 樹木園에 이르는 6㎞ 정도의 거리이다. 코스가 험한 편은 아니지만 山의 精氣는 만끽할 수 있다.

작년에는 동창회에서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들고 이어 장기자랑과 경품추첨 등 흥겨운 여흥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금년에도 더욱 다채로운 스케줄을 준비하고 있다.

오직 그날이 雨天이 아니기를 기원하며 우리 동문들의 많은 참가를 겁들 부탁 드린다.

그리하여 즐거웠던 그날의 뒷얘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들의 이 얘기판에 끼지못한 同門들은 스스로 同門의 情理에서 소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平生에 등산을 모르는 동문은 없는가? 등산은 하되 冠岳을 오른 적이 없는 동문은 없는가? 冠岳은 오르되 開校記念의 登山大會에 참가 못한 동문은 없는가!

同門의 情과 誠은 다른 먼곳에서 모아지는게 아니다. 이런 터전에서 뭉쳐진다. 山의 精氣에는 바로 그런 妙藥의 効驗이 있다. 그리고 登山은 결코 체력이나 시간의 낭비가 아니다.

유럽지역 8개국支部 결성

英·獨·佛·瑞西등서 親睦모임가져

崔회장 一行 強行軍에 支部活性化 目標달성

本會 崔主鎬회장과 鄭宗澤常任부회장, 曹爽사무처장은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유럽지역을 순방한 뒤 8개국 同窓會支部의 결성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會長團의 유럽 8개국 지부순방의 목적은 유럽 각국에 산재해 있는 동문들의 현황파악과 각 나라별 지부결성에 있었으며 각 지부동창회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창회에서는 지난해까지 美洲전역의 각 지부 동창회를 정착시킨 뒤 유럽지역 해외지부의 조직과 활성화를 올해 사업목표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崔회장 일행은 英國지부(姜哲壽지부장)를 첫 방문지로 하여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墺地利, 덴마크, 네덜란드를 차례로 순방, 현지동문들과 지부결성을 협의, 創立總會를 열면서 강행군으로 지부결성을 끝마쳤다.

특히 이번 순방을 통해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崔회장의 열성으로 유럽 각국의 유명대학들을 둘러보면서 母校가 지향해야할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도 큰 수확이었다고 회장일행은 말하고 있다.

이번에 창립총회를 마친 지부와 지부장은 다음과 같다.

▲英國支部=지부장 姜哲壽(58년 工大卒) ▲프랑스支部=지부장 鄭宗植(55년 文理大卒) ▲獨逸支部=지부장 金春秋(61년 文理大卒) ▲스위스支部=지부장 全命濟(48년 文理大卒) ▲墺地利支部=지부장 李景鍵(63년 工大卒) ▲덴마크支部=지부장 金昌鎬(55년 工大入) ▲네덜란드支部=지부장 林基滿(58년 文理大卒)

(관련記事 5면)

▲在獨支部 창립총회를 마친후 기념촬영

同門친선작품展 성황

師大동창회 7개부문 86점 출품

師範大學同窓會(회장 趙鏞樂)는 지난 9월 3일~7일까지 제1회 「同門親善作品合同展示會」를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했다.

동문상호간의 친목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전시회에는 韓國畵, 西洋畵, 書藝, 寫眞, 壽石 분야에 걸쳐 8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특히 金鍾泌(민자당 최고위원)동문의 서예작품이 돋보였으며 전시기간동안 7백여명의 관객이 관람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齒大12회同期會 「同門手帖」 이달 總會기해 發刊

齒大12회동기회(회장 尹溪燦·58년卒)는 지난달 3일 임원회의를 갖고 총회개최등 현안문제를 협의했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이달에 개최할 정기총회 안건과 현안문제, 그리고 송년회 준비를 위한 토의가 있었으며 그동안 추진해온 「同門手帖」을 이달안에 배포키로 했다. 12회 동기회 회원은 1백49명이다.

人文大學長에 李相沃교수 音大學長에 徐友錫교수로

모교는 지난 9월1일자로 人文大 蘇光熙學長 후임에 李相沃(58년 文理大卒)교수와 음악대학 金容振學長 후임에 徐友錫교수를 임명했다.

李相沃 人文大신임학장은 미국화연구소장과 영어영문학과장을 역임했으며 徐友錫 신임음대학장은 음대 교무담당학장보와 서양음악연구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企劃室長에 金東建교수

모교는 지난 9월 1일자로 新任 기획실장에 金東建(65년 商大卒)교수를 襄茂基전임실장 후임으로 임명했다.

金실장은 행정대학원 원장보와 모교 기획위원회를 지낸 바 있다.

中央圖書館長에 朴孝根교수

모교는 지난 7월 27일자로 임기만료된 鮮于仲皓중앙도서관장 후임에 朴孝根(63년 農大卒)교수를 임명했다.

朴교수는 농대 교무 및 학생담당 학장보와 부속농장장을 맡은바 있다.

定總서 새任員 선임

뉴욕支部 李文輝회장 취임

동창회 뉴욕지부는 지난 9월3일 뉴욕 퀸즈「서라벌회관」에서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는 회칙에 따라 李典九회장에 이은 신임회장 선출과 임원진의 개편이 있었다. 1천여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뉴욕지부는 미주지역 동창회에서 가장 활발히 지부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15대 회장으로 李文輝(58년 文理大卒)동문을 선임했다. 李회장은 그동안 뉴욕지부 문리과대학동창회장을 맡아왔다.

제14대 회장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크게 공을 세운 李典九前회장은 임기동안 회원명부 발간과 골프모임 등 친교행사로 유대를 강화하고 동문의식을 고양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李文輝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각단과대학동창회와 유대관계를 긴밀히 하여 협조체제를 굳히고 미국내 碩學同門學者와 母校교수를 초청, 공개강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개진했다.

이어 재정보고와 실무진을 새로 선임했는데 다음과 같다.

▲總務 申龍淳(81년 自然大卒) ▲財務 崔永泰(61년 文理大入) 禹漢浩(70년 文理大卒)

母校支援방안 모색

齒大동창회 2억모금계획

齒科大學同窓會(회장 李春根)는 지난 8월6일 모교 교수회의실에서 실무이사회를 가졌다.

한편 뉴욕지부 文理大同窓會에서는 지난달 27일 30여명의 열성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李文輝회장이 뉴욕支部長으로 취임한데 따라 金德雲54년 文理大入)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는 재무현황 검토와 특별기금조성, 동창회비납부율 提高방안, 모교지원과 동창회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토의결과 기금목표 2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회장단이 적극 참여해 회비납부를 독려키로 했으며 우선 李회장이 특별기금으로 5백만원을 출연했다. 또한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수익사업을 활발히 하고 동기회장단에게 생일축하카드를 보내 동문가의 친목도모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기로 결의했다.

懸案문제 협의

藥大동창회 이사회

藥學大學同窓會(회장 韓倜承)는 지난달 8일 동창회관 느티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20여명의 임원들은 매년 10월에 있는 「동창의 날」행사를 약사현안문제로 치르지 않기로 하고 대한약사회에 성금을 기탁하기로 하는 한편 동문들에게 당면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월17일 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등산대회에는 약대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耳順同門테니스會 12회대회 개최

오는 10월 10일(일)오전 8시 관악캠퍼스 교수테니스코트에서 耳順동문 테니스대회가 개최된다.

각 단과대학출신 원로동문테니스 모임인 耳順동문테니스회(會長 李禮植)는 매년 3~4회의 테니스대회를 가지면서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다.

檢察고위간부 동문들 대거 進出

검찰총장에 金道彦 동문 榮轉

高檢長급등 승진10명 法大출신 각광

▲金道彦동문

지난15일 발령에 따라 후배에 길을 터주기 위해 사퇴한 朴鍾黃(61년 法大卒) 前검찰총장 후임으로 金道彦(63년 法大卒) 대검차장검사가 검찰총수가 됐다. 이에따라 宋宗義(64년 法大卒)서울지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승진발령하고 서울지검장에 金鍾求(63년 法大卒)법무부 검찰국장을 전보발령하는 등 고검장 승진 5명, 고검장 전보 2명, 검사장 승진 11명, 검사장 전보 17명 등 검사 직급이상 검찰고위간부 35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가 단행돼 서울大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

서울고검장에는 金賢哲(63년 法大卒) 광주고검장이 전보발령됐다. 광주고검장에는 黃相九(62년 法大卒)대전지검장이, 고검장급인 법무연수원장에는 池昌權(63년 法大卒)대구지검장이 각각 승진, 발령됐다. 이밖에 동문으로 검사장 승진 및 전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진 ▲崔慶亢(67년 法大卒)법무부기획관리실장 ▲金壽長(66년 法大卒) 법무부보호국장 ▲柳在成(64년 法大卒)법무연수원기획부장 ▲田溶泰(64년 法大卒)법무연수원연구위원 ▲申鉉武(62년 法大卒)대검총무부장 ▲朴舜用(68년 法大卒)대검공판송무부장 ▲安剛民(64년 法大卒)대검감찰부장 ▲李載侊(66년 法大卒)서울고검차장 ▲姜信旭(67년 法大卒)대구고검차장 ▲李光洙(65년 法大卒)광주고검차장 ▲崔炳國(65년 法大卒)대전고검차장

□전보 ▲朱光逸(65년 法大卒)법무부법무실장 ▲崔永光(64년 法大卒)법무부검찰국장 ▲金澤秀(61년 法大卒)법무부교정국장 ▲沈在淪(66년 法大卒)대검강력부장 ▲申昌彦(64년 法大卒)부산지검장 ▲崔明善(63년 法大卒)대구지검장 ▲沈相明(64년 法大卒)광주지검장 ▲金相洙(64년 法大卒)대전지검장 ▲孔永規(64년 法大卒)창원지검장 ▲元正一(67년 法大卒)청주지검장 ▲金鎭世(69년 法大卒)춘천지검장 ▲金秉學(66년 法大卒)제주지검장

全南馬山 지부 理事會 열려

後半期사업등 활성화대책 협의

全南·光州지부(회장 吳炳文)는 지난달 3일 무등산온천관광호텔 한식당에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임원들은 지부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각계 동문들에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친목을 위한 모임을 자주 갖기로 합의한 한편 이를 후반기에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10월 總會준비 친목사업등 논의

馬山지부(회장 金炯英)는 마산시 소재 「함흥집」에서 지난달 1일 25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동문들간의 친목강화를 위한 단합대회를 겸해 이루어진 것으로 10월 개최 예정인 총회 준비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눈등 진지한 분위기로 일관했다. 특히 마산지부 동문들의 활발한 움직임도 매체를 통해 홍보키로 했다.

市道支會長회의 열려

醫大同窓會 운영지침등 마련

醫科大學同窓會(회장 姜信浩)에서는 지난 9월 8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93년도 支會長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姜信浩회장은 개회사에서 各支會활동상황에 노력한 支會長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모교 발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全勝煌의대학장은 모교의 현황소개로 인사를 대신했으며 이날 참석지회장들은 期別로 44년 졸업생부터 85년 졸업생에 이르는 45명이 참석, 93년도 사업 및 會務보고가 있었다.

公知事項으로는 오는 17일 총동창회 주최 親睦登山大會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支會長들의 홍보와 독려가 있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서울醫大人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支會운영을 해달라는 사무국의 요청이 있었다.

30주기념행사 성황

商大17동기회 교수회관서

商科大學 17회同窓會(회장 李弼坤 63년卒 中央日報社長)는 지난달 4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졸업30주년 기념행사를 거창하게(?)개최해 話題에 올랐다.

이날 열린 30주년 기념행사에는 商科大學同窓會 張禮準회장과 모교 교수들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는데 행사 1부에선 張禮準회장의 축사로 시작돼 「出發 30주년」이란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치렀다.

이번 행사를 위해 동기회에서는 지난 1월엔 회장단 회의, 2월엔 역대회장과 총무등 임원이 회동, 행사개요를 결정하고 5월부터는 30여명의 준비위원을 위촉, 9차례의 모임을 갖는등 이번 행사에 임했다는 결과보고로 박수를 받기도.

2부에서는 이날 초대된 열세분의 은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3부행사는 「友情의 시간」으로 1백32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友情을 돈독히 했다.

17회동기회는 1959년 3백20명이 입학, 63년과 65년사이에 3백18명이 졸업했다. 그동안 同期生 유자녀 장학금으로 12년간 1억2천6백만원을 지급해 왔으며 올해에도 25명에게 3천2백50만원을 지급하는등 동문간의 유대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모범동기회로서 구실을 다했다.

새 任員陣 출범

原子工科 사업추진

최근 工大 원자핵공학과 동기회에서는 9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결산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했다.

이날 선임된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表相基(65년卒) ▲부회장: 全豊一(66년卒)·金三珅(68卒)·禹永培(72년卒)·李重戴(71년卒)·李銀哲(62년卒) ▲감 사: 金宰豊(64년卒)·趙南振(71년卒)

졸업기념 醫大교문 헌정

27회 동기회 師恩會열어

졸업20주년을 기념, 모교에 「大學正門」을 기념물로 헌정하고 38분의 恩師를 초청, 師恩會를 열어 話題에 오른 醫大27회동기회, 지난 8월 16일 1백30여명의 동기생들이 졸업20주년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모교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在美거주동문 15명이 가족과 함께 참석,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모교방문 행사에선 金勝煌醫大학장과 韓萬青병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남뉘학교현황을 소개받고 시설을 견학하는 순서에 이어 졸업20주년을 기념, 母校에 正門을 제작 기증(7백30만원)했다.

이날 저녁, 동기회에서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사은회 및 가족상봉의 날」행사를 가졌는데 명예교수 12분등 38분의 은사와 동기생 64명, 동문가족 1백43명등 총2백46명의 서울大家族이 모여 은사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으며, 재학시절의 슬라이드 사진감상 등 여흥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87호

英·獨·佛등8개국 同窓會 창립 成果

═ 海外支部網 구축완료단계 ═

유럽支部 巡訪報告

── 鄭 宗 澤(本會 常任副會長)

同窓會 유럽地域의 支部 결성은 今年 目標로 策定됐었다。今般 힘든 日程으로 強行軍을 거듭하면서 8개국 支部를 創立하고 귀국한 會長團의 壯擧는 同窓會史에 기록될만 하다。이 글은 本會 鄭宗澤常任副會長이 순방보고를 겸해 寄稿한 것이다。〈편집자〉

同窓會 유럽地域의 支部결성은 올해 사업목표중의 하나였다。지난해까지는 美洲지역의 支部활성화를 우선과제로 全力投球한 결과 美洲地域總同窓會는 이미 결성되었고 現地 同窓會재단의 목표설정이 완료됨과 同時에 美洲版 同窓會報도 現地에서 發刊하는 등 多彩로운 방법으로 活性化를 이루게 되었다。

이에 拍車를 가하여 全유럽지역에 걸쳐 國別로 同窓會지부결성은 實務次元에서도 時急한 課題로 논의되었다。巡訪계획과 작업은 지난 年初부터 착수하게 되었고 不毛地나 다름없는 유럽에 同窓會支部를 결성、同門들을 結束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本會 崔主鎬회장의 熱意와 國政에 臨해야 함에도 어려운 시간을 할애한 徐廷和부회장을 모시고 曺 爽사무처장을 帶同、지난 8월7일 20일간 8개국 支部결성을 위해 英國에 도착했다。이번 순방계획은「서울大人이 있는 곳에 發展이 있다는 그 現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와 同窓會支部 汎世界化를 이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서울大人들의 紐帶와 結束을 다지는 契機를 마련한다는 데에도 그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特히 이번 순방기간의 촉박한 日程속에서도 유서깊은 유럽의 有名大學을 골고루 살펴보게 된 일도 큰 성과중의 하나였다。

또한 유럽巡訪계획과 日程을 세우면서 過多한 旅費支出을 抑制해야 한다는 會長特命으로 崔會長과 徐廷和 副會長은 一切의 旅費를 自費로 分擔하였고 本人과 曺 事務處長은 航空券을 에코노믹크라스를 擇하는 물론 投宿도 3류호텔에서 트윈室 1개를 얻어 서로 코고는 소리를 들으며 疲勞를 달래기도 하였으나 그 만큼 당초 계획된 목적도 달성하여 오랜 追憶으로 남을 것같다。

各支部의 순방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

◇英 國

英國支部는 지난 4월 康哲壽 現지부장의 헌신적 노력과 李洪九 前駐英大使의 뒷받침으로 발족했다。8월 7일 會長一行은 盧昌熹 駐英大使가 公館으로 초청、支部任員、有力동문과의 晩餐으로 同門間의 隔意없는 대화와 活性化문제、親睦행사 등을 논의하고 歡待를 받았다。支部의 活性化와 同門들의 유대강화는 現地 第一銀 鄭光宇동문、東亞建設 朴連根동문、外換銀 崔京植동문들의 숨은 功勞와 협조로 잘 이뤄가고 있었다。

盧昌熹(60년 商大卒)大使의 『英國정부가 韓國의 교육열을 연구키위해 2名의 장학관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말에 모두들 흐뭇한 祖國愛와 긍지를 느꼈다。처칠生家와 옥스퍼드大學은 참으로 印象的이었다。

◇佛 蘭 西

趙完圭 前母校총장이 파리를 방문했던 3년전 同窓會 결성을 力說、2년전에 發足됐으나 이번 訪問이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鄭宗植(55년 文理大卒)지부장과 高承澈(80년 經營大卒)총무、成亨子(76년 師大卒)동문의 열정적인 노력을 잊을 수 없다。張瓘燮(54년 法大入)大使의 外交俱樂部 만찬초청으로 任員과 有力동문들이 함께 모일 機會를 마련해줘 지부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

◇獨 逸

프랑크프르트 한국식당에서 8월 13일 創立總會를 개최、30여 有力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會則을 축조심의、진지한 토의끝에 확정하고 支部長 선출에 들어가 프랑크프르트 韓人會회장인 金春秋(61년 文理大卒)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다음날 金春秋會長 및 金太智(57년 法大卒)駐獨大使부부와 도르트문트에서 開催된 派獨30周年記念行事에 參席하였으며、슈트트갈트대학과 동연구소(노벨상수상자 2명배출)및 하이델베르그대학을 방문。

이날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副會長:崔大煥(66년 商大卒·골덴벨 支社長)·趙仁男(66년 文理大卒·外換銀 現地法人長)·李丙寅(72년 工大卒·韓國會社 社長)·金敬實(75년 音大卒·프랑크프루트 관현악단원) ▲監査:金炫桂(63년 商大卒·韓銀所長)·李淑子(65년 看護大卒) 한편 獨逸支部에서는 창립총회석상에서 本會「1백억 科學硏究振興基金」으로 2천마르크를 모금、本會에 出捐했다。

◇瑞 西

이 나라는 首都가 베른、상업산업중심지는 쥬리히、국제기구가 많기로는 제네바여서、許陞(62년 文理大卒)제네바大使와 동문직원이 14명 근무하고 있는 제네바에서 모임을 갖고 유엔 언커크에서 30여년 근무했던 全命濟(48년 文理大卒)박사를 회장으로 선임했다。이자리엔 許陞대사와 WCC 徐경석(文理大卒)동문도 참석했다。

스위스는 국민소득이 세계 제1이면서도 국립대학은 工科大學뿐、人文、自然科등 그밖의 大學은 私立으로 운영토록하여 理工系대학에 文敎豫算을 편중 지원하고 있었다。3천8백42m나 되는 몽블랑 頂上까지 올라가니 모두가 酸素不足탓인지 甚한 현기증으로 어지럼을 겪었으나 崔會長의 끄덕없는 健康에 一行들은 感歎을 禁치 못하였다。

◇伊 太 利

首都로마에는 大使館에 근무하는 同門만으로 限定되어 있고 산업및상업도시인 미라노에 僑民과 商社주재원이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정확한 회원수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李祺周(59년 法大卒)大使 공관에서 同窓會모임을 갖고 미라노에 居住하는 有力동문중에서 支部長 선출을 현의 결정하고 各界 同門들과 晩餐의 즐거움을 가졌다。

나폴리、쏘렌트、폼페이에 거주하는 동문과 가족을 찾아 7시간의 자동차 여행을 強行、모두 疲勞로 지쳐있었다。

◇墺 地 利

日程이 빡빡한 당초 스케줄에 따라 巡訪地域에서 創立總會를 개최하면서도 期待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現地의 同門들도 會長團一行이 먼길을 直接찾아와 支部創設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熱意에 고마움과 갈채를 보내는 분위기로 충천하였다。

崔主鎬회장과 徐廷和부회장은 그룹運營문제와 國會日程관계로 伊太利에서의 日程을 끝으로 8월 23일 먼저 歸國길에 올랐다。本人과 曺 爽사무처장이 나머지 日程을 맡아 비엔나를 방문、同窓會모임을 갖고 李景鍵(63년 工大卒)TOMI&CO社長을 支部長으로 選任했다。

特히 비엔나에는 音大출신 동문들이 많아 音樂藝術의 都市임을 實感케했다。15명의 노벨賞수상자를 배출한 빈大學과 베토벤、모짜르트、요한슈트라우스 等의 墓地를 방문한 것은 가장 印象的이고 感銘이 깊었다。

◇덴 마 크

코펜하겐의 支部발족에는 金世澤(63년 法大卒)大使의 獻身的인 努力에 힘입은 바 크다。코펜하겐에 定着、30년간 移民생활로 船舶설계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金昌鎬(55년 工大入)동문을 支部長으로 선임、活性化의 물고를 텄다。

코펜하겐大學을 돌아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네 덜 란 드

風車·튤립·運河의 나라 암스텔담에 도착、헤이그에 잠들어 계신 李儁(卒業時 姓名 李濬在·法大前身 法官養成所 1회·1895년卒)烈士 묘소를 참배헌화했다。

8월 26일 高麗亭(한국음식점)에서 巡訪國의 마지막 동창회 創立總會를 개최했다。20여년을 암스텔담에서 居住해온 林基滿(58년 文理大卒)동문을 會長으로、副會長에는 鄭仁錫(61년 齒大卒)동문외 1名과 全弘基(73년 工大卒)동문을 總務로 위임하는 등 참석동문 전원의 찬성을 받아 和氣애애한 가운데 열린 結成大會에 同參할 수 있었던 보람과 기쁨은 이루다 表現할 길이 없었다。

이제 유럽各國 全域에 흩어져 살고 있는 同門들과 同門家族間에도 서로 왕래하며 만나 볼 수 있으리라는 期待에 부푼 유럽同門들의 表情들이 무척 밝게 보였다。

▲會長團 盧昌熹駐英大使에 感謝牌수여

▲張瓘燮駐佛大使와 崔會長一行

▲獨逸슈트트갈트大연구실에서 설명을 듣는 會長一行

不毛地에 참여의식 높여 活性化이룩

各國大使 동문출신 同窓會활동에 견인역

紐帶 결속으로 母校발전에 寄與계기 마련

「서울大人 있는 곳에 발전있다」 現場확인 自負心가져

實物경제 慣行토대로 補完策 서둘러야

時論 金融實名制 定着될 것인가

郭 秀 一

〈63년 商大卒·母校교수〉

서양 속담에 『만인의 친구는 아무의 친구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얼마전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金融實名制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러한 주장은 학계나 경제정책 담당자뿐만아니라 일반 서민들에서부터 시민운동단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까지도 찬성의 뜻을 표하였고 실시를 주장했었다. 실지언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경제단체인 全經聯(전국 경제인 연합회)까지도 금융실명제 실시에 찬성하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한달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이 不安感을 감추지 못하고 나를대로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국 만인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금융실명제가 요사이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는 제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 각층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살펴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겠다.

첫째, 이제까지 本人의 명의로 예금을 하던 庶民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다. 이제까지 모든 예금을 본인의 이름이나 實名으로 예금을 하던 일반 시민들이 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갑자기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다. 예를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으로 積金을 들어주던 경우, 갑자기 실명제라 하여 혹시 贈與稅나 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있겠다. 또 남편의 月給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통장에 예금하던 主婦의 경우에도 갑자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가 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다. 이런한 부담이나 불안감을 과거에도 실명으로 예금을 하였으나, 금융실명제 이후 각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예금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왔고, 所得이 어떻게 발생하였느냐고 물었을 때에 느끼는 부담이다. 이는 財産은 한 가족의 共有物이라는 유교적 관념에서 누가 돈을 벌던 어느가족의 구좌에 들어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예금을 하던 慣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나타난 預金口座만을 가지고 각종 세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不利益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인 것이다. 우리 속담에 「주머니돈이 쌈지 돈이라는 개념에서 식구 중 아무 구좌에나 예금하던 관습 때문에 느끼는 부담이라 하겠다.

둘째는 동네 구멍가게, 작은 음식점, 삯철물을 운영하는 零細自營業者들의 부담감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일반적으로 稅制上에서 課稅特例者라 하여 극히 미미한 세금을 납부하여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상점이나 음식점이라 해도 노련대가로 월급이상의 收入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은 실제발생 소득보다 낮은 기준에서 산정되는 과세특례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세금회피의 효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실명제하에서 이들 영세업자들은 실명제로 인하여 모든 거래가 드러나게 되어 과세특례자의 혜택을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소득이 전부 노출되어 過徵金을 내야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영세자영업자들의 또다른 부담은 거래금액의 노출을 막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건을 살 때 팔때 현금으로 거래함으로써 과다한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는 부담과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른 거래량의 축소 및 利子負擔 등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친 부담이다.

세째로는 주로 製造業을 하는 中小企業에게 주는 부담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자금조달은 恒時的인 문제이다. 중소기업의 규모와 신용상태가 은행과의 거래에 불리한 경우 은행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과거에는 어음을 가지고 私債市場에서 割引을 받아 금융조달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이제까지 존재했던 사채시장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이제까지 私債金融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에게는 자금의 흐름을 마비시켜 결국은 資金難 때문에 不渡를 걱정하는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다.

네째로 대기업들이 실명제 이후 겪을 부담이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이제까지 稅法上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초과하여 쓰는 경우 秘資金이라는 별도의 자금을 통하여 해결해 왔다. 한예로 건설부문에서 공사를 얻기 위하여 로비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쓰는 것이 사업관행이었다. 이런 예는 단순히 건설공사의 로비 자금뿐만 아니라 과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非公式 政治資金도 마찬가지 성격의 것이다. 이 모든 자금들이 결국은 비실명제하에서 非實名으로 조성되어 비실명적 방법에 의하여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명제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관행을 확립시킬수 있는가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일반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명제란 단순히 금융거래를 실명에 의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구조와 거래관행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우리 經濟主體들에게 많은 당혹감과 저항감을 야기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금융실명제의 定着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찬성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經濟正義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실명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定着시키느냐에 있다. 그 해결책 중의 하나는 현재 경제주체들이 보이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새롭운 거래관행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資金출처 調査기준 밝혀내야 贈與상속세율 대폭 引下 바람직 課稅 특례자 범위 현실화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쓰는 것이 사업관행이었다. 이런 예는 단순히 건설공사의 로비 자금뿐만 아니라 과거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非公式 政治資金도 마찬가지 성격의 것이다. 이 모든 자금들이 결국은 비실명제하에서 非實名으로 조성되어 비실명적 방법에 의하여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실명제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관행을 확립시킬수 있는가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결국 일반 시민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명제란 단순히 금융거래를 실명에 의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식구조와 거래관행을 정립시켜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부담은 우리 經濟主體들에게 많은 당혹감과 저항감을 야기하기도 하고 효과적인 금융실명제의 定着에 큰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경제주체들이 찬성하고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듯이,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과 經濟正義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실명제는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다. 이미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금, 우리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定着시키느냐에 있다. 그 해결책 중의 하나는 현재 경제주체들이 보이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제주체들이 금융실명제에 대하여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새롭운 거래관행을 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몇가지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우리경제가 비록 自由市場經濟體制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바탕은 儒敎思想에 기본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夫婦間의 財産共有나 가족간의 거래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개념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실명제에 의하여 가족간에도 거래가 명백히 드러남에 따라 贈與나 相續이 더욱 명확해지게 되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증여세나 상속세의 세율이 대폭 낮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간의 거래가 잘 노출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높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간의 모든 거래가 명확해지는 경우 시민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증여나 상속세의 세율이 큰폭으로 인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零細한 自營業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는 과세특례자의 범위를 현재의 수준에서 현실화하여 약 10배 정도 올려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초기에는 세금징수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별 종합소득세에 의하여 세금증대 효과가 자연히 발생할 것이다. 또 현재 거래금액이나 外形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경향도 과세특례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 논리는 결국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되 현재 市場에서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이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점차적으로 개선을 추구하자는 주장이 되겠다.

세째는 금융실명제에서 가장 부담이 되고 있는 資金出處 조사문제이다. 일반 서민에서 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것이 資金出處調査이다. 서양속담에 『세상에서 두가지 확실한 것은 죽음과 稅金 뿐이다』라고 하더니, 서민이건 기업이건 죽음만큼 세금을 무서워하는 세상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니 겁이나지 않을 경제주체가 없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의 범위를 완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공표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除去해야 하겠다. 현재의 자금출처 조사기준과 범위는 너무나 넓어 아무래도 전원을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바에는 범위를 좁히고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일반시민이나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겠다.

금융실명제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으므로 이제는 이 制度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命題만이 남아 있다. 이를 위하여는 생활속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고 實物經濟의 慣行을 토대로 하여 補完策들이 수립되어야 하겠다.

경제 발전, 正義실현 위해서도 반드시 成功시켜야

停年退任교수 열분의 한마디 말씀

學問연구와 後學육성에 半平生을 바쳐온 母校교수 열분이 지난 9월초 정년을 맞아 강단을 떠났다. 그동안의 勞苦를 치하하면서 母校를 위한 獻身의 뜻을 기리는 뜻으로 「한 마디의 말씀」을 받아 싣는다.〈편집자〉

內實있는 大學으로 굳혀지길

金光浩 교수
(人文大·영문학)

『서울大에서 청장년을 보낸 만큼 이제 나이들어 정년퇴임을 하게 되니 매우 섭섭하다』는 金교수는 52년 영문과를 졸업, 67년 전임강사로 시작, 27년간 모교의 교수로 봉직해온 「서울大人」이다.

현실에 지나치게 민감하지 않고 오로지 학문연구와 후진양성에 몰두해 學者로서의 외길을 걸어온 金교수는 최근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世界의 大學이란 口號나 外形에 치우치기 보다 內實있는 대학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母校에 당부.

英聯邦문화연구에 크게 寄與

文祐相 교수
(人文大·영문학)

지난 57년 대학원 수료, 68년 호주 시드니大에서 수학하고 75년 영문과 초대학과장을 역임한 文교수는 英小說전공학자로서 91년부터는 인문대 부설 영연방연구소 소장직을 맡아 영연방권 문화 연구에 크게 기여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퇴임 후에는 여유를 갖고 유럽문화를 많이 접할 생각이란는 文교수는 동창회에 대해 『그동안 모교를 위해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론도 동문들의 의견을 널리 수용해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社會科學 정착·보급에 貢獻

高永復 교수
(社會大·사회학)

54년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박사과정을 마친 후 66년 조교수로 부임한 이래 27년간 교단에 섰은 高교수는 오직 학문연구의 길에 매진하고 후학양성에 애써온 전형적인 스승像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社會學이 아직 자리잡지 못했던 초창기에 사회학을 국내에 소개하고 보급시킨데 공헌했으며 최근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

『우리 서울大人은 결속력이 약한게 흠이라고 지적하면서 『同窓會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마련하길 바란다』고.

"오늘의 工大"있게한 張本人

李光魯 교수
(工大·건축학)

51년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同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 56년 모교에 부임, 30여년을 서울大에 봉직해온 李교수는 오늘의 工大를 있게한 장본인이다. 공대동창회 총무와 건축학과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동안 그 기반을 탄탄히 다졌을 뿐 아니라 초기의 「서울工大」誌를 發刊하는 등 남달리 愛校心을 발휘해왔다.

현재 大學院동창회장이기도 한 李교수는 『고인 물이 아니라 항상 흘러든 물처럼 활기차고 새로와지는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고.

工業기술분야 개척 先驅者

元鍾洙 교수
(工大·전기공학)

元교수는 52년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64년부터 모교에 재직하는 동안 5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많은 전기분야의 기계도 개발하는 등 우리나라 공업기술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어 후학들로 부터 존경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학문의 끝을 보지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아쉽다』는 元교수는 동창회에 대해 『동문과 동창회가 모교와 재학중인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造船공학 정상화이끈 學人

黃鍾屹 교수
(工大·조선해양공학)

黃교수는 28년 함남 단천 출신으로 모교공과대학의 전신인 경성공업전문학교 기계과, 모교 조선공학과, MIT大 대학원을 거친뒤 54년 선박유체역학과 부유체운동론을 담당하는 전임강사로 모교에 부임.

대학원교육 전문위원을 지내면서 70여편의 논문 저술을 비롯 국내외의 학회와 기술개발 연구에 참여, 공학계 정상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黃교수는 『후진 교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현실여건을 꾸준히 성장하고 동창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意見수렴하는 同窓會로

朴應鎭 교수
(獸醫大·수의학)

지난 53년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77년 모교 부교수로 부임, 수의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朴교수는 『밤늦도록 학생들과 연구와 실험에 몰두했던 기억이 무엇보다 보람되게 느껴진다』며 학자의 외길 인생에 긍지와 애착을 갖고 있다.

『모교 학생들은 사회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인 만큼 일시상의 명리나 성공에 앞서 기꺼이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후학들에게 당부한다.

毒性學분야 개척에 心血

李昌業 교수
(獸醫大·수의학)

『수의학은 인간의 보건·위생과 직결되어 있어 인간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문이라며 자신의 학문분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은 李교수는 53년 農大 수의학과를 졸업, 61년 모교 전임강사로, 70년대엔 가축중독학 과목을 개설한 이래 毒性學분야에 전념해 왔다.

李교수는 『이제껏 동창회가 친목단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는데 앞으론도 모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잊지않는다.

基礎科學연구 뒷받침 긴요

張斗煥 교수
(獸醫大·수의학)

모교 수의학과, 미국 미네소타大 대학원을 거쳐 61년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한지 33년. 그동안 學長補 및 일본 이와大 교환교수로도 활동해온 張교수는 현재 수의대의 연구환경에 대해 『우리 수의학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에 대한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학문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승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것』이라 말한다.

퇴임후엔 평소에 즐기던 수석채집에 몰두하고 싶다고.

臨床病理學 정착위해 專念

金相仁 교수
(醫大·임상병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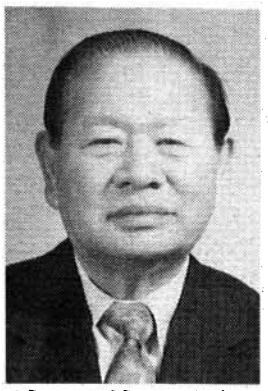
『임상병리학이 제 궤도에 오른 것에 만족스럽고 좋은 제자들이 많은 것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는 金교수는 55년 모교 醫大졸업, 미국 미네소타大에서 임상병리학을 수학한 후 30여년간 우리나라 임상병리학을 개척하고 모교병원 임상병리과를 이끌어왔다.

현재 한국의학회 부회장, 국제혈액학회 표준위원회 한국대의원직을 맡고 있으며 퇴임후 종합병원 원장으로 환자진료와 병원에서의 연구활동을 계속한다고.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87호

名譽教授 칼럼

淡水魚의 代父생활



崔 基 哲
(31년 師大卒·前師大교수)

정년이 되기 2, 3년 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다. 기초기, 발전기, 비약기, 원숙기, 인생의 4기간을 얻기가 매우 힘들었다.

다른 사람들은 圓熟期를 살아야 할 때에 하고 싶었던 한문을 마음껏 해서 充電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원고지 10만매를 쓰자. 그런 생각도 했다. 20년만 살 수 있어도 1년에 5천장씩만 쓰면 되지 않는가.

4층 섬당이 사이에 끼어 소망이 무산되었다. 실험실은 창고가 되고 서재를 대용하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

일의 단순화는 철순을 넘기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惰性은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물고기 保存에 同門참여 바라
停年후에도 10만매 원고집필

경남의 자연—담수어 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8권, 민물고기를 찾아서, 민물고기 이야기, 참붕어의 사랑 고백, 민물고기, 한국담수어원색도감, 한국의 민물고기, 우리의 민물고기 길르기, 민물고기 백과, 민물고기의 고전과 사투리, 민물고기의 미세분포(未完), 수산록 등 쓰는 동안에 원고지는 3만매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열마나 학문에 정진했는가. 열마나 충전이 되었는가. 부끄러움이 앞을 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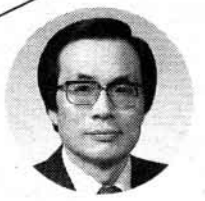
강물은 어김없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물과 물고기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도, 교육도, 또 무엇도 발전한다고 하는데 水質은 점점 떨어지고 물고기는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만 있다.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 우리의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하고 있는 主役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다. 나이가 많다고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무엇인가. 沙漠과 地獄을 물려줄 수는 없다. 물 늙이 터 백만 ↓ 섬역화된 백만 ↓ 흉의 유실을 막기 위한 높고 긴 성 ↓ 자연림을 원시림으로. 행동 체계부터 설정하고 지난 9월 4일에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를 창립했다. 年會費 5천원, 회원 목표는 1백만명이다. 『한국의 물과 민물고기 우리의 정성으로 살리자』가 우리의 口號이다. 남녀노소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휘파람 불며 달성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미역감는 일에 열중하기만 하면 된다. 버들치와 갈겨니가 승리할 때까지, 강에는 1급수와 2급수만 흐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역사가 바르게 흐르게 될 때까지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울大人이 몽땅 입회해주면 백만 원군을 얻는 것, 두 손 들어 환영하겠다.

健康教室

換節期 건강

慢性환자 가을철 定期검진 필수적
—過勞·過飲·過食·過吸煙 피해야



許 鳳 烈
(67년 醫大卒·母校교수)

가을은 흔히 수확의 계절이라고 말하지만, 건강관리에도 매우 중요한 계절이다. 낮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고 가을을 지나면서 밤의 길이가 더욱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변화에 대하여 지상의 모든 생명체들도 겨울채비에 바빠진다. 나무에는 단풍이 들기 시작하고 낙엽이 진다. 그리고 동물은 털갈이를 하고 철새는 다시 새로운 이동을 시작한다. 그리고 어떤 생물은 깊은 겨울잠을 준비한다.

人體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生體리듬에 변화가 시작된다. 여름철에 둔화되었던 신체의 신진대사가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신체리듬의 변화가 있을 시기에는 신체적으로는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거나 재발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특히 초가을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疾患에 걸리기 쉽다. 감기는 대개 각종 감기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데, 한번 걸리더라도 면역이 오래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年中 반복해서 걸리기 쉽다. 주로 환자가 만졌던 물건이나 신체접촉을 통하여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외출후에는 손을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다. 흔히 초기에는 코가 막히거나 맑은 콧물이 나오는데 낭중에 심해지면 황색으로 바뀌기도 한다. 눈물이 나거나 미열과 함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 시간이 경과하면 목소리가 변하기도 하며 기침이 나오기도 한다. 감기에는 특효약이 없고 현재까지는 대증적인 치료법이 최선이다. 즉 열이 나거나 근육통이 있면 아스피린들과 같은 해열진통제를 쓰거나 기침약을 쓸 수도 있다. 무엇보다 過勞를 피하고 쉰는 것이 가장 좋다. 室內는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물수건을 이용하여 충분히 습도를 유지한도록 해야 한다. 대개 감기는 1주일이내에 잘 낫지만 요즈음은 감기도 1개월이상 오랭동한 기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大氣汚染이 심한 도시에서 시하고 초기에 잘 치료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는 수도 있다. 요즈음과 같이 氣溫差가 심한 기후에선 적절한 신체 보온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도한 스트레스, 過勞, 過飲, 不良한 營養, 과도한 吸煙, 사람이 밀집해 있는 환경들을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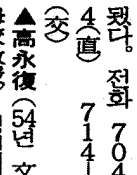
대개 겨울철에 수년마다 또는 지역적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높은 고열과 근육통등 신체증상과 함께 폭발적인 전염력이 특징이다. 특히 인플루엔자는 노인이나 심장질환, 만성기관지염들을 앓고 있는 사람이 걸리면 매우 위험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노령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초가을에 毒感豫防注射를 맞아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봄, 가을과 같은 환절기에는 소화성궤양 환자에서 재발이 잦다. 특히 과거 심이장궤양을 앓은 사람이 다시 위가 쓰리거나 소화가 안될때는 궤양의 재발인지 確診後에 除酸劑나 항궤양치료제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궤양증세가 자주 재발되는 환자는 반드시 담배를 끊도록 해야한다. 왜냐하면 담배는 궤양을 잘 낫지 않게 하거나 재발을 일으키기 쉽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만성간염, 만성기관지염들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가을철에 정기진찰을 받아서 건강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제가 적절한지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좋다. 가을철은 기후가 선늘하여 운동이나 야외활동에 꾸준히 지속한도록 해야한다. 대개 운동은 하루 30분 내지 1시간 정도, 등에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적합하다. 일단 시작하면 3개월정도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나므로, 가을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하여 신체의 抵抗力을 높여주고 慢性疾患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

「서울大學校同窓會報」는 廣告媒體로서도 權威와 信賴를 認定받고 있습니다. 企業의 이미지 刷新과 PR에 여러분의 參與있으시기 바랍니다.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87호



최근 방송문화진흥회 임시회의에서 同會 이사장에 選任됐다。 전화 704-6441 (直) 714-6181 (交)

▲高永復(54년 文理大卒·母校敎授)=정년퇴임을 기념해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을 주제로 한 제3회 사회문화연구집담회를 8월28일 가졌다。

▲金烈圭(54년 文理大卒·仁濟大敎授)=최근 홍사단강당에서 도산아카데미연구원이 주최하는 전통문화강좌에서 「시베리아샤마니즘과 한국의 민속신앙」을 주제로 特講。

▲崔鍾起(54년 法大卒·母校敎授·本會理事)=최근 서울힐튼호텔 지리산룸에서 중국국제우호연락회, 上海사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대만·홍콩·중국 경제교류 및 협력 전망」 세미나에 참석,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과 전망」을 발표했다。

▲韓美銀(顧問·本會理事)=지난달 7일 한미리스(주) 이사회에서 회장에 選任。

▲鄭然世(57년 工大卒·海港會會長·本會理事)=지난달 10일 93년도 사단법인 해항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등 대원 및 선원자녀 대학생 30명에게 1천5백만원의 장학금 지급。

▲朴根淳(57년 美大卒·엑스포조직위監事)=최근 「대전엑스포기념재단설립위원회」위원장에 選任。

▲尹鐘求(57년 醫大卒·原子力病院長·本會理事)=최근 「인삼이 인체 암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로 제38회 대한민국 학술원 상을 받았다。

▲慎平宰(61년 商大卒·大韓敎育保險會長)=지난달 3일 韓國材料學會가 수여하는 93년도 공로상 수상자로 選定。

▲金宗源(61년 齒大卒·母校敎授)=최근 벨지움 포스칼리지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악안면외과학회에서 同會 부회장에 選任。

▲全聖均(61년 大學院卒)=최근 국내 최초로 문을 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과학연구센터 초대소장에 就任。

▲張潤宇(62년 美大卒·誠信女大敎授·本會理事)=최근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의 1년간 교환교수, LA한국문화원과 하와이이민 90주년 기념사업 등 한미문화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安輝濬(67년 文理大卒·母校敎授·本會理事)=최근 서울대 박물관장에 就任。

▲李燦河(67년 經大院卒·新韓會計法人代表·經大院 사무국장에 就任。

▲洪義植(65년 行大院卒·前新韓投資金融社長·本會理事)=최근 열린 주총에서 同社 會長에 選任。

▲許方彬(66년 文理大卒·前駐앵커리지總領事)=최근 초대 駐호치민總領事에 任命。

▲鄭在植(66년 商大卒·前斗山商社專務)=지난달 6일 두산기계사장으로 昇進。

▲韓成鎬(83년 工大卒·浦項工大敎授)=최근 국제인간공학회가 선정하는 92년도 최우수논문상 수상자로 뽑혔다。 韓동문의 논문은 「연속실험자료의 통합을 통한 정량적 설계 지침의 개발」。

同窓會館 冠岳홀

*최상평군·안성원양(92년 音大卒)=10월7일 12시30분。

*오수훈군(88년 工大卒)·민형선양=10월7일 14시。

*장동기군(86년 商大卒)·김영신양=10월3일 12시30분。

*전병희군(92년 師大卒)·주병선양=10월3일 14시。

*유선일군(89년 自然大卒)·유영란양=10월3일 15시30분。

訃音

▲吳相洛(53년 商大卒·母校名譽敎授)=지난 9월21일 영동 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 吳동문은 모교 초대 경영대학장을 지낸 바 있으며 학술원 회원, 한국경영학회장과 한국마케팅학회장을 역임했다。

▲金寶斗(67년 大學院卒·母校名譽敎授)=9월7일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 金동문은 모교 법대학장과 사법대학원장을 역임했다。

金春秋同窓會獨逸支部長

"親睦행사 벌여 參與의식 높일계획"

母國이나 母校라는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느끼게 되는 때는 외국에 나가있을 때라고 한다。 그러고보면 동창회의 해외지부활동은 자발적이고 열성적일 수 밖에 없다。

파악된 동문수가 1백50여명되는 독일지부는 지난 8월13일에 결성창립총회를 가졌지만 그 기본적 토대는 이미 6~7년전에 마련됐다。 그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창립추진위원장으로 열정을 쏟아온 金春秋동문(61년 文理大卒)이 이날 만장일치로 支部長에 추대되었다。

모교 대학원과정을 마친 후 2년정도 중소기업은행에서 근무하다 66년 쾰른大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독일과 인연을 맺어 현재 한독여행사와 한독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金동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2백여명 정도의 동문을 찾아 동창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친목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여름에는 야유회를, 연말에는 망년회를 개최해 정례화할 계획』이라면서 『그 한 예로 동문초청연주회나 미술전람회 등 예술분야행사를 적극 후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는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支會를 둘 계획이어서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지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독일지부의 입장을 보이는 金동문은 『현실적인 안목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 생활신조로 한기욱 여사와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다。

30년전 留學한 文理大출신

同門을 찾아서

姜哲壽同窓會英國支部長

"內實있는 운영으로 活性化 이룰터"

지난 4월7일 런던 외국기자협회 칼튼하우스에서는 서울大同窓會 英國支部창립총회가 열렸다。 세계속의 대학으로 부상하려는 母校의 위상에 걸맞게 동문들도 이에 부응하려 런던을 중심으로 긍지를 보여준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康哲壽동문(58년 工大卒)이 선임됐는데 최근 평통자문위원회 참석차 일시 귀국한 康회장은 『영국에 상주하는 동문들이 수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지만 동문 개개인이 동창회를 결성해 친목을 도모, 내실있게 활동하는 것이 모교를 위한 유일한 첩경이란데 뜻을 모았다』고 창립경위를 설명했다。

康회장은 모교 공대 전기학과를 졸업한 뒤 무역계통에 투신하여 70년 天友社의 런던지점장을 지내면서 20여년간을 수출입업무에 종사해왔다。 그동안 在英한인회 회장과 在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현재 자신의 姓과 모국의 이름을 딴 강코리아Product를 운영하며 평통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다。

『비즈니스의 궁극적 목적은 부의 축적이지만 차후에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가를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정당해야 한다』며 평소 생활의 강직성을 드러낸 康회장은 교민 8천명중 1백40여명의 동문 대부분이 대사관, 은행, 금융기업체등의 주재원이기에 2~3년 주기로 회원의 변동이 있어 동창회 내실을 기한다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모국에 귀국하여 영국에 거주했던 동문들의 모임을 가질 절호로 동창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오는 12월에 망년회를 겸한 총회를 비롯해 앞으로 매년 2회씩의 모임을 가져 동창회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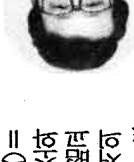
康동문은 朴熙貞여사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20여년전 渡英한 工大출신

動靜

이 欄은 同門들의 동정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사진과 함께 記事를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電話는 생략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실명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電話 : (702) 2233~5
FAX : (703) 0755



▲陳政一 (64년) 文理大 文學部 敎授=대구시 달서구 두류3동 두류주공아파트 3단지 303동 1703호 ☎(053) 583-0000

▲李鍾吉 (64년) 高麗大 醫大 敎授·本會 理事=서울 중구 을지로2가 1-5 의료보험조합 내과 ☎(267) 1111

▲李鍾仁 (63년) 南海大 敎授=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362) 0000

▲李秉喜 (63년) 成均館大 醫大 敎授·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종로구 연지동 28 ☎(762) 5000

▲金信一 (63년) 陸軍士官學校 敎授=서울 노원구 공릉동 126 육군사관학교 ☎(972) 2000 內 5960-7659

▲金世準 (63년) 梨花女大 敎授·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종로구 연지동 28 ☎(762) 5000 內 3960-7200

▲金光雄 (62년) 高麗大 醫大 敎授·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서울 종로구 연지동 28 ☎(762) 5000 內 3960-7200

▲韓國年 (61년) 師範大 敎授·本會 理事=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267) 1111 內 2960-7200

▲李東鎬 (60년) 梨大 敎授·本會 理事=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362) 0000 內 2960-7200

▲柳鳳學 (60년) 梨大 敎授·醫學博士=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362) 0000 內 2960-7200

▲李東鎬 (59년) 梨大 敎授·本會 理事=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 ☎(362) 0000 內 2960-7200

▲李秉浩 (59년) 梨大 敎授·韓國醫學硏究所 所長

單科大學別로 펼쳐본 母校교수 현황

母校에 在職중인 교수는 1,369명이다. 이중 專任강사 19名을 除外하면 1,350명이 된다. 在學生數는 27,271명에서 2학기에 再入學허가된 166명을 합하여 27,437명으로 남학생이 2만2천명, 여학생이 6천명쯤 된다. 母校를 세계의 大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이들을 가르치고 학문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인 교수의 명단을 各界同門들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다. 〈편집자〉

□人文大學

學　長=李相沃
學長補=金南斗　許成道

△國語國文學科

學科長=金允植
教　授=高永根　權寧珉　金炳國
金完鎭　金容稷　金鎭世
閔丙秀　朴東奎　徐大錫
沈在箕　安秉禧　李基文
李秉根　李相億　李相澤
李翊燮　任洪彬　趙東一
韓哲傳
副教授=權斗煥　吳世榮　曺南鉉
崔明玉
助教授=李賢熙

△中語中文學科

學科長=金時俊
教　授=金學主　李炳漢　崔完植
洪寅杓
助教授=徐敬浩　李永朱　柳鍾睦

△英語英文學科

學科長=石璟澄
教　授=金明烈　金石山　金榮茂
金寅淑　朴南植　朴熙鎭
白樂晴　宋洛憲　梁東暉
李京植　李秉建　李誠元
趙炳泰　趙俊學　千勝傑
黃東奎
副教授=金聖坤　申正鉉　柳明淑
李廷鎬　李鍾淑　洪起會
邊昌九　張敬烈
助教授=洪基瑄

△佛語佛文學科

學科長=洪在星
教　授=元潤洙　兪平根　李　桓
鄭智榮　洪承五　李東烈
副教授=吳生根
助教授=李仁星　張在盛　李建雨

△獨語獨文學科

學科長=金錫道
教　授=金哲子　朴煥德　宋東準
申琇松　申泰浩　李甲圭
李炳璨　崔淳鳳　許昌雲
黃允錫
副教授=安三煥　林宗大
助教授=任漢淳　千冀泰

△露語露文學科

學科長=權喆根
副教授=李仁暎
助教授=金喜淑

△西語西文學科

學科長=金顯瑒
副教授=金銀瓊　金春鎭

△言語學科

學科長=金允漢
教　授=朴亨達　成白仁　李廷玟
李炫馥　張奭鎭　文洋秀

△國史學科

學科長=盧泰敦
教　授=李泰鎭　崔炳憲　崔承熙
韓永愚
副教授=權泰檍　金仁杰　鄭玉子
助教授=盧明鎬　宋基豪

△東洋史學科

學科長=金容德
教　授=閔斗基　吳金成　李成珪
副教授=金浩東　朴漢濟

△西洋史學科

學科長=崔甲壽
教　授=吳麟錫　李仁浩
助教授=朴枝香　裵永洙　朱京哲
安秉稷

△考古美術史學科

學科長=崔夢龍
教　授=安輝濬　任孝宰
副教授=李鮮馥
助教授=李柱亨

△哲學科

學科長=李泰秀
教　授=蘇光熙　金麗壽　沈在龍
李楠永　李明賢　車仁錫
副教授=金泳楨　金曉明　白琮鉉
宋榮培　黃璟植
助教授=許南進

△宗教學科

學科長=尹以欽
教　授=羅鶴鎭　鄭鎭弘
副教授=琴章泰
助教授=金鍾瑞

△美學科

學科長=吳炳南
副教授=金文煥
助教授=吳宗煥　朴駱圭　李永煥

□社會科學大學

學　長=金容九
學長補=鄭雲燦　柳佐益

△政治學科

學科長=黃秀益
教　授=具永祿　吉昇欽　金榮國
李正馥　金弘宇　崔　明
安清市
副教授=金世均
助教授=朴贊郁　張達重

△外交學科

學科長=河龍出
教　授=呂井東　朴奉植　朴相燮
河英善
助教授=尹永寬　崔丁云

△經濟學科

學科長=李性輝
教　授=姜光夏　姜命圭　金宗炫
裵茂基　宋丙洛　安秉直
李承勳　李俊求　鄭基俊
鄭英一
副教授=金秀行　金宗鎭　梁東烋
助教授=吳星煥　李　根　錢英燮
洪起玄

△國際經濟學科

學科長=林鍾哲
教　授=金世源　金信行　金仁埈
朴宇熙　李天杓　表鶴吉
洪元卓
副教授=金泰成　李之舜
助教授=朴埈用

△社會學科

學科長=韓相震
教　授=林玄鎭　權泰煥　金璟東
金一鐵　金晋均　金彩潤
愼鏞廈　洪斗承
副教授=李玨範
助教授=張慶燮

△人類學科

學科長=全京秀
教　授=金光億　李光奎　李文雄
韓相福
副教授=王翰碩

△心理學科

學科長=閔庚煥
教　授=金正午　徐鳳延　元鎬澤
李寬鎔　李將鎬　曺大京
趙明翰　車載浩
副教授=金明彦　李春吉
助教授=權錫萬

△地理學科

學科長=柳根培
教　授=金　仁　朴彩沃　朴英漢
副教授=許宇亘
助教授=李廷滿

△社會福祉學科

學科長=金尙均
教　授=南世鎭　崔日燮
副教授=崔聖載
助教授=金泰星　曺興植　金惠蘭

△新聞學科

學科長=朴承寬
教　授=康賢斗　朴明珍　李相禧
秋光永　車培根
副教授=姜明求

□自然科學大學

學　長=李仁圭
學長甫=閔東必　姜思旭

△數學科

學科長=金成基
教　授=高英昭　金道漢　金相文
金濟珌　金宗殖　朴世熙
尹玉鏡　尹在漢　李四桂
李鉉求　鄭在明　曺永賢
池東杓
副教授=姜正爀　金明煥　金昌昊
金　赫　金泓鍾　李仁碩
崔炯仁
助教授=桂勝赫　申東雨

△計算統計學科

學科長=韓相榮
教　授=高　健　禹治水　金宇哲
金載周　朴聖炫　朴弘來
宋文燮　全鍾雨
副教授=朴炳旭　柳錫仁　趙信燮
助教授=金鍾權　申榮吉　李相求
廉憲榮

△物理學科

學科長=禹鍾天
教　授=權肅一　金斗哲　金廷九
金濟琬　金鍾贊　金鎭義
朴英雨　宋熙星　李龜澈
李敏浩　李晙圭　李在熙
劉寅碩　趙鏞民　張浚成
崔柄斗　方亨燦　張會翼
副教授=吳世正　任志淳　崔茂榮
助教授=盧泰元　金善基　諸元鎬
李洙宗　趙仁來

△天文學科

學科長=李時雨
教　授=尹鴻植　李相珏　洪承樹
助教授=具本哲　朴昌範　李明均

△化學科

學科長=崔明彦
教　授=金永植　金景泰　金明洙
金夏奭　金鎬澈　朴仁源
朴炯錫　徐世源　徐正憲
申菊朝　申正休　申桓澈
梁喆學　李潤榮　李禹永
李　檍　李熙雄　崔珍鎬
河永龜
副教授=金聖根　朴鍾相　李相燁
鄭永根
助教授=張斗銓　洪鍾仁

△生物學科

學科長=李光雄
教　授=姜萬植　權寧命　金相九
金俊鎬　李廷珠　洪英男

副教授=安正善
助教授=朴鍾郁

△ 分子生物學科

學科長=盧賢模
教　授=朴相大　河斗鳳
副教授=金敬眞　金　元　李鍾燮
　　鄭鎭河

△ 微生物學科

學科長=李啓準
教　授=姜玄三　任正彬　河永七
副教授=金相鍾　盧貞惠　鄭佳鎭
助教授=鄭學聲

△ 大氣科學科

學科長=全鍾甲
教　授=朴淳雄
副教授=康仁植　尹淳昌　李東珪
助教授=林奎晧　崔宇甲

△ 地質科學科

學科長=朴昌業
教　授=金洙鎭　金貞煥　朴喜寅
　　李基和　張浩完
副教授=李容鎰　崔德根
助教授=趙文燮　李岡根

△ 海洋學科

學科長=高哲煥
教　授=金　坵　朴龍安　沈載亨
　　李昌馥　鄭鍾律　趙成權
副教授=金慶烈　吳林象
助教授=趙炳喆

△ 醫 豫 科

學科長=李四桂

△ 齒醫豫科

學科長=金　冠

□家 政 大 學

學　長=安承堯
學長補=柳孝仙

△ 消費者兒童學科

學科長=玉先花
教　授=柳岸津　李基春
副教授=李基榮
助教授=李順炯　余禎星

△ 食品營養學科

學科長=金解梨
教　授=崔惠美
副教授=黃仁京
助教授=白喜英　權薰貞

△ 衣類學科

學科長=李恩英
教　授=李順媛　林元子
副教授=金敏子
助教授=朴貞姬

□看 護 大 學

學　長=金梅子
學長補=韓景子

△ 看護學科

學科長=韓景子
教　授=朴誠愛　朴永淑　朴貞浩
　　徐文子　李笑雨　李恩玉
　　洪京子　洪麗信
副教授=金錦順　宋美順　尹順寧
　　河良淑
助教授=崔明愛

□經 營 大 學

學　長=金植鉉
學長補=安相炯　林鍾沅

△ 經營學科

學科長=林鍾沅
教　授=郭秀一　金星基　金元銖
　　金榮珍　金正年　南相午
　　閔相基　朴廷寔　愼侑根
　　沈炳求　尹錫喆　尹桂燮
　　李正浩　趙東成　崔鍾泰
副教授=郭守根　金載一　朴吾銖
　　安重鎬

□工 科 大 學

學　長=李基俊
學科補=金道然　成宏模

△ 建築學科

學科長=沈愚甲
教　授=金文漢　金震均　鄭日榮
　　洪性穆
助教授=金光禹　金光鉉

△ 工業化學科

學科長=安泰玩
教　授=李潤植　李鎬仁　崔次鏞
副教授=吳承模　李正學　李志華
助教授=金秉祺　張正植　趙在英

△ 金屬工學科

學科長=尹悰奎
教　授=姜春植　姜　卓　金商周
　　金淵植　羅亨用　李東寧
　　李厚喆
副教授=李正中　朱承基
助教授=金起範　辛光善　吳奎煥

△ 機械工學科

學科長=鄭石浩
教　授=姜信榮　金應瑞　盧承卓
　　劉丁烈
副教授=高尙根　李愚日　李俊植
助教授=崔萬秀

△ 機械設計學科

學科長=韓東哲
教　授=吳洙益　李敎一　李長茂
副教授=申孝澈　李建雨
助教授=金潤榮　朱鍾南　金鍾源
　　朴喜載

△ 無機材料工學科

學科長=鄭秀鎭
教　授=金道然　金　煥　朴順子
副教授=金亨俊　柳漢一
助教授=金鉉二　尹義埈　洪國善

△ 產業工學科

學科長=李昶勳
教　授=姜錫昊　朴淳達　李冕雨
　　鄭聖進
副教授=朴珍雨　吳亨植
助教授=咸周浩

△ 纖維工學科

學科長=曺元鎬
教　授=高錫元　金相溶　李在坤
　　河完植　洪性一
副教授=姜泰晋
助教授=金在弼

△ 原子核工學科

學科長=鄭基亨
教　授=姜昌淳　金昌孝　朴惠一
　　朴君哲　李銀哲　鄭昌炫
　　洪相喜
助教授=黃一淳

△ 資源工學科

學科長=李喜根
教　授=徐廷熙　李正仁　田溶元
　　全孝澤　玄炳九
副教授=孫憲俊　金泰由　姜周明

△ 電氣工學科

學科長=韓松曄
教　授=朴永文
副教授=朴鍾根　徐鎭憲　韓民九
　　黃琪雄
助教授=金容權　薛承基　李　赫

△ 電子工學科

學科長=李在弘
教　授=金元燦　閔弘植　安秀桔
　　李鍾德　李忠雄
副教授=金泰正　朴榮俊　李秉基
助教授=南相郁　徐光錫　鄭德均

△ 컴퓨터工學科

學科長=李錫浩
教　授=金榮澤　金宗相　曺裕根
副教授=申玹植　全洲植
助教授=金炯周　閔相烈　崔陽熙

△ 制御計測工學科

學科長=崔悰鎬
教　授=權旭鉉　李商郁　李章揆
副教授=李範熙　河仁重
助教授=車相均　趙東日

△ 造船海洋工學科

學科長=崔恒洵
教　授=金極天　金曉哲　裵光俊
　　李起杓　張昌斗
副教授=梁永淳
助教授=辛鍾桂

△ 土木工學科

學科長=李吉成
教　授=金明模　鮮于中皓　吳炳煥
　　張丞弼　朴仲鉉　朴昌浩
　　尹定燮　鄭泰鶴　朱鍾元
副教授=高鉉武
助教授=徐一源　鄭忠基　全京秀
　　金在寬

△ 航空宇宙工學科

學科長=金承祚
教　授=盧五鉉　李東鎬　李海京
　　趙慶國
副教授=鄭仁碩
助教授=金庚旦　金智煥

△ 化學工學科

學科長=李賢九
教　授=尹寅燮　李基俊　李華榮
　　李弘熙　崔昌均
副教授=文相翕　劉永濟　李昇鍾
助教授=金和鎔　車國憲

□農業生命科學大學

學　長=鄭昌柱
學長補=李敦求　李炯周

△ 農 學 科

學科長=蔡永岩
教　授=權容雄　李浩鎭　李弘秬
　　沈載昱
助教授=高熙宗　李泳雨

△ 山林資源學科

學科長=玄正悟
教　授=金泰旭　禹保命
副教授=李景俊
助教授=金星一　尹汝昌　鄭柱相

△ 動物資源科學科

學科長=河鍾圭
教　授=金東岩　金顯旭　朴英一
　　任京淳　韓仁圭
副教授=李茂夏
助教授=崔鈗哉　韓在容

△ 農工學科

學科長=張秉郁
教　授=高在君　權純國　金文基
　　鄭夏禹　金景旭　高學均
　　盧祥夏　柳寬熙
副教授=朴承禹
助教授=趙成仁

△ 農化學科

學科長=金秀一
教　授=柳順昊　朴昌奎　林善旭
　　鄭　進
副教授=金秀彦　崔良燾

△ 農經濟學科

學科長=朱奉圭
教　授=金浩卓　潘性紈　沈永根
　　王仁槿　李瓆鉉
副教授=姜奉淳

△ 農生物學科

學科長=柳孝錫
教　授=林雄圭　姜錫權　羅瑢俊
　　夫庚生　鄭厚燮　趙鏞涉
　　禹建錫
副教授=李仁遠　朴恩雨
助教授=安龍濬　李俊浩

△ 天然纖維學科

學科長=朴泳煥
教　授=南重熙　文在裕　卓泰文
副教授=朴宗信

△ 農家政學科

學科長=李連淑
教　授=朴陽子　崔正和　崔銀淑
助教授=韓慶惠

△ 農業敎育科

學科長=金性洙
教　授=李庸煥　宋海均　李茂根
　　鄭址雄　崔敏浩
助教授=鄭喆永　崔英璨

△ 園藝學科

學科長=金昞東
教　授=高光出　李炳馹　朴孝根
副教授=金基善　李昇九

△ 食品工學科

學科長=徐鎭浩
教　授=朴官和　李啓瑚　全在根
副教授=文泰和

〈다음號 연재〉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제187호

新刊

■면 역

—金宇鎬(江原大교수)著

56년 慶醫大卒·69년 大學院博士 학위 취득. 免疫에 관한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항용되고 있으면서도 이에 관해 쉽게 이해되도록 해설된 서책이 별로 없던 차에 이 책은 면역의 기구에 대해서 그림까지 삽입하면서 비근한 예를 들어 理解度를 높인 전문서이다.

AIDS환자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生體에 있어 免疫의 기능이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實感하게 된다. 갖가지 細菌이나 바이러스등의 미생물에 대한 저항성을 상실하였을 때 人體에는 중요한 변화와 암까지 발생하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책은 면역에 대한 보다많은 관심을 갖도록 일깨워주는 건강의 경종서라 할 수 있다. <江原大出版部刊>

■지중해의 회상

—李符永(母校醫大교수)에세이集

59년 醫大卒, 同大學院卒, 神經精神科專門醫로서 著述활동도 왕성한 李교수가 10여년간 신문 잡지에 발표했던 글을 모은 세번째 에세이집이다.

전공분야인 정신위생, 의료계몽, 정신보건, 정책이나 그밖의 시사비평의 글들을 일부러 제외시킨 수필 또는 에세이라는 말에 합당한 유려한 내용의 글을 뽑아 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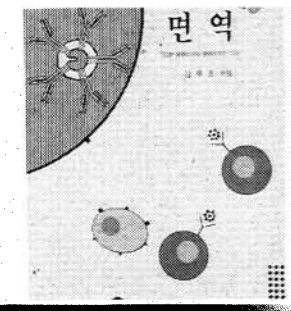
제2부에 실린 '한국인의 성격'과 '대학교수론'등은 문필가 이상으로 내용이 진지하고 독특하다. <正宇社刊 값5천5백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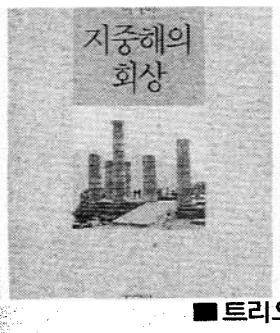
■욕망의 오감도

—趙星基 連作小說

77년 法大출신의 小說家로 작품활동이 왕성한 作家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강간당해온 상황이라 할 수 있는 5, 6공시절의 사회구조를 성폭력 행태를 통해 총체적으로 꼬집은 연작소설이다.

趙동문은 "성폭력이라는 고상하지 못한 소재를 감히 소설화시켜 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순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 말하면서 독자의 讀法도 그러한 측면에서 행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이고 있다. <세계사刊 값5천원>





公演

■서울마스터즈 定期演奏會

—10월 4일 예술의 전당

KBS교향악단 멤버들이 모여 만든 이들 현악4중주단은 30여회에 걸친 전국무대의 연주활동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제1바이올린 全用宇(82년 音大卒 KBS교향악단 부악장), 제2바이올린 方泳昊(84년 音大卒·KBS교향악단 부수석), 비올라 鄭孝錬(88년 音大卒·中大강사)과 첼로 金주심으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의 연주곡으로 모짜르트, 스메타나, 그리고 현대작곡가인 바버의 작품이다.

■트리오 콘서트

—10월 14일 예술의 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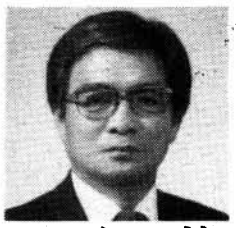
바이올린 金光君(83년 音大卒·경원대교수) 호른 金泳律(80년 音大卒·KBS교향악단 부수석) 피아노 金금봉 연세대교수 등의 실내악 주자들이 꾸미는 연주무대. 이번 연주회에는 Fr·Duvernoy, L·Berkely, J·Brahms의 곡이 오른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연주회

—10월 15일 예술의 전당

89년 창단된 전문 직업연주단체의 제15회 정기연주회. 裵德潤(50년 音大卒)동문의 객원지휘로 르네상스 모테트, 바로크 모테트, 20세기 종교 합창음악과 성니콜라이를 위한 미사를 연주한다. 피아노는 廉惠慶(86년 音大卒)동문.

同門수필



丘 仁 煥
(54년 師大卒·母校교수)

成熟한 겸손의 美學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그렇게 지루하던 여름의 시샘비가 걷히고 쾌청한 가을의 제 모습을 선보여 들과 산이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다. 역시 하늘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이 나오리만치 天高馬肥의 가을이 성숙의 미학을 선사하고 있다. 이른 봄부터의 수다한 忍苦의 도정을 거쳐 결실의 고개를 넘어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世人은 그저 황금으로 변해 가는 가을을 찬탄할 뿐이다.

멀리 보이는 산은 누런 빛으로 물들어 가고, 초가집 지붕위에는 빨간 고추가 널려 있으며, 아래채의 지붕에는 박이 수줍게 누워 있고 그 앞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시골, 그 앞의 들은 벼가 누렇게 익어 황금이 물결치고 단풍으로 붉게 타오르는 東山의 산기슭에는 들국화가 외롭게 피어 있는 가을이 그 풍성한 成熟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맑고 청량한 가을의 하늘은 또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가. 그 청자빛 고운 색이 온 누리에 한점 부끄러움 없는 祝福을 내리면서 고개 숙여 읊조리는 경이로움을 보이고 있다. 익어 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黃金의 들판이나 오곡백과가 수줍게 붉어가는데 成熟과 謙虛의 조화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가을은 익어가는데 세상은 하늘을 손으로 가리고 있는 珍風景을 보게 된다. 실명제니 재산 공개니 非理의 공직자 추방이니 온통 벌집을 쑤셔 놓은 것같이 야단인데 그 귀추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그야 그 누가 잘 사는 사람을 욕할 사람이 있고, 그 누가 權力을 가졌다고 존경의 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으며, 그 누가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고 질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다만 그 하나하나의 行動을 눈여겨 보면서 군두선으로 흐른다는 世論을 모면하기 위한 시늉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며 비난의 心情을 안으로 삭일 뿐이다. 그렇게 地下에서 용트림하는 私錢들이를 하는 큰손들의 뭉칫돈은 왜 그대로 잠재해 있고, 권력이나 利權에 의해서 무연고지요 개발예정의 黃金의 땅에 투기한 공직자나 의원들, 그리고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재산을 교묘히 은닉한 사람들이 속죄의 빛이 없이 그대로 의젓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무연고지에 주소를 옮기거나 차명으로 땅을 사거나 빌딩이나 다세대 주택의 부당한 소유나 이윤을 추구하는 보기조차 민망스러운 짓을 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변명을 늘어 놓고 있으니 지탄하기 전에 연민의 정이 앞선다. 겨우 처리한다는 것이 당에서 나가게 하고 쉬수하면서 당권정지니 경고니 하여 우물쭉 하고 넘어가려는 그 작태가 國民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여야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입법부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탄하는 여론의 소리를 듣지않는 것은 철면피하고 우둔한 자세다. 일차 재산 파동 때나 타기관과의 형평성도 어긋나니 아무리 손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도 하늘이 가려질 수 없는 우둔한 짓이요, 無責任하고 오만한 權威主義的인 태도다.

權·財界지도급인사 自肅의 태도없어 안타까워

가장 밝고 겸손하게 민의를 수렴하여 立法活動을 하고 국정의 감시자가 되어 이 나라의 내일을 가시화시켜야 하는 국회나 겸손하게 민의에 봉사하고 이 나라의 온들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가 되어야 할 공직자를 국민들이 굴러다니는 개똥을 보듯해서야 어디 신한국을 창출해 낸는 地平을 보여주고 견인차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벼나 곡식은 익을수록 고개가 숙어진다. 發穗할 때는 빳빳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익어갈수록 成熟의 美를 보여주면서 겸손해진다. 權力이나 財力 또는 指導層에 있면,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獨善에 빠지지 말고 익어가는 가을과 같이 성숙의 겸손을 보여주고 自肅으로 속죄하는 미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발 보기 흉한 꼴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귀와 눈을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이다.

年會費 내주신 분

〈理事 : 8월1일~9월10일
一般 : 8월1일~9월10일〉

人名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度입니다.

會長團

▲부회장 具平會=50만원
▲부회장 金環東=50만원
▲부회장 朴晟容=50만원
▲부회장 河永基=50만원
▲부회장 朴容晟=50만원
▲부회장 李洙彬=50만원
▲부회장 金善弘=50만원
▲부회장 李爽熙=50만원
▲부회장 趙南煜=50만원
▲부회장 玄在賢=50만원
▲부회장 李季順=50만원
▲부회장 白樂晥=50만원

冠岳會

▲이사 朴冠鎬=30만원
▲이사 金道昶=30만원
▲이사 申讚雨=30만원
▲이사 尹相澈=30만원
▲감사 朴英俊=30만원

常任理事

▲李連雨 공과대회장=20만원
▲琴震鎬 법과대회장=20만원
▲元暎玉 가정대회장=10만원
▲金範來 수의과대회장=10만원
▲韓倜承 약학대회장=20만원
▲鄭佑賢 음악대회장=10만원
▲姜信浩 의과대회장=50만원
▲李燦河 경영대학원회장=10만원
▲金大奎 보건대학원회장=10만원
▲姜敏求 행정대학원회장=10만원

理事

◇家政大學
▲李榮珠⑦③주부

◇工科大學
▲高源鎬④⑧대한양행사장
▲馬奎河⑥⑦아정기사장
▲成基榮⑤⑧풍영화공사장
▲孫達植⑤②부천세종병원감사
▲宋振煥④⑧前한불유활유사장
▲李潤植⑤⑨한국수자원公사장
▲李允煥⑤⑥해운대개발사장
▲崔相弘⑤⑧한일기술硏회장
▲崔鎭宇⑥⑨삼원기계사장
▲洪性一⑤⑧서울대교수
▲黃海根⑥⑩동일기술公사장

◇農科大學
▲朴容鉉⑤④두산기술원회원
▲徐泳燮⑤④경남창영부자사장
▲申東完⑤④충남대교수
▲吳敏永⑤⑤前임업연구원
▲李載明⑤⑩용인정신병원
▲趙鑄宇⑤⑧前롯앤드하스
▲韓輝彦⑥⑧흥신양행사장

◇文理科大學
▲金容穆⑤⑧서울대교수
▲呂井東⑤⑤서울대교수
▲李東馥⑤⑦국가안전기획부

◇美術大學
▲權純亨⑤⑤서울대교수
▲李信子⑤⑤덕성여대학장
▲陳眞淑⑥⑥한양대교수

◇法科大學
▲金光一⑥②국민당최고위원
▲金泰武⑥③한국전기통신公
▲朴有信⑦④천안지원장
▲朴駿緖⑥④청주지법원장
▲李貴昊⑤⑧코리아제록스
▲李聖春⑥⑧상업은행권이사
▲李定洛⑥③서울형사지법원장
▲全炳宇⑤⑤한국전기통신公
▲崔鍾庫⑦⑩서울대교수

◇師範大學
▲金洛升④⑨前청운중학교장
▲金東鉉⑤⑦동의전문대학장
▲南億祐⑤⑥영재유치원
▲盧斗鎬⑤⑥금성고교장

◇商科大學
▲梁東錫⑥⑨대한교원공제회
▲俞炳林⑤⑥서울교대교수
▲李鎭淳⑥①삼산고교장
▲趙孝鎭⑤⑥신일해운사장
▲崔承煥⑥⑩중앙교육원
▲金道昇⑥⑤한일통상사장
▲金奭煥⑥②뷰티나종합상사
▲文鎭錫⑥①연합불산사장
▲朴明植⑥③한국컴퓨터부사장
▲朴贊弘⑤⑥ICC SAB

◇齒科大學
▲金 一⑤⑤김일치과의원
▲朴基成⑤⑨박치과의원
▲夫三煥⑥④부산보훈치과의원
▲申慶浩④①신경호치과의원
▲黃圭亶⑥⑩황규선치과의원

◇經營大學院
▲金秉權⑦②두성정밀사장

◇敎育大學院
▲鄭用述⑥⑧교육부 실장
▲黃和子⑥⑧성신여대학장

◇保健大學院
▲金勇一⑥①서울대교수
▲金在洪⑥⑥한양대병원
▲李桂鐸⑤⑧청구성심병원장
▲崔成培⑥①서울대교수
▲許鳳烈⑥⑦서울대교수

會費납부에 뜨거운 精誠을…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年會費가 순조롭게 入金되고 있습니다. 뜨거운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만 납부하시면 되며, 보내주신 회비는 同窓會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과 母校支援에 유익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되도록 앞당겨 내셔서 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會費구분 —

- 一般會員 ····· 1만원
- 理　事 ····· 5만원
- 常任理事 ····· 20만원
- 監　事 ····· 30만원
- 副會長 ····· 50만원
- 會　長 ····· 100만원

◇醫科大學
▲具鐵會⑤⑦성형외과의원

◇獸醫科大學
▲尹宗鉉④⑥평화문화硏원장
▲李滿基⑤⑦한양증권사장
▲李炳燮⑥④경희병원장
▲鄭鍾瑞④⑨前대우철강
▲洪思穆⑤②남서울관세사

◇藥學大學
▲金宇鎬⑤⑥강원대교수

◇音樂大學
▲金明俙⑤⑤한국성악회이사장
▲白南玉⑥⑨경희대교수
▲白淸心⑦①서울대교수

◇環境大學院
▲張鶴淳⑤①신신제약고문
▲崔鍾泰⑥⑧법률사무소

◇行政大學院
▲柳尙昊⑦①변호사
▲李載錫⑥①낙관ENG사장
▲田畯恒⑥⑨변리사

◇行政大學院
▲李載錫⑥①낙관ENG사장
▲田畯恒⑥⑨변리사
▲崔鍾泰⑥⑧법률사무소

◇司法大學院
▲金泰政⑥⑦대검중수부장
▲文永吉⑥④변호사
▲朱光逸⑦⑩법무부법무실장
▲池昌權⑥⑤법무연수원장

◇社會大學
▲강종석⑧⑤
▲김서유⑧⑥
▲권태한⑧⑩
▲김연진⑧⑨

一般

◇人文大學
▲丁奎榮⑦③신우ENG회장

◇自然大學
▲강 헌⑦⑧
▲강병산⑦⑥
▲김병분⑧⑤
▲김일형⑧⑥
▲나영남⑧⑤
▲성노현⑧①
▲이상원⑧⑧
▲장찬동⑧⑨
▲정석민⑧⑨
▲조상욱⑧⑧
▲조형택⑧⑥
▲황병천⑦⑥
▲강분기⑦⑥
▲권 혁⑧⑨
▲김유태⑧⑤
▲김진철⑧⑦
▲문희록⑦⑥
▲안계수⑦⑧
▲장지창⑧⑧
▲정 진⑧⑦
▲정연택⑧⑥
▲조석준⑦⑦
▲홍석륜⑧⑧
▲김상선⑦①
▲김석진⑤②
▲김성배⑦②
▲김성환⑦①
▲김세기⑦①
▲김수광⑥③
▲김승곤⑤⑤
▲김영분⑥④
▲김용권⑧③
▲김원섭⑤②
▲김유규⑥③
▲김인상⑦①
▲김정배⑤⑤
▲김정욱⑥⑧
▲김종민⑥④
▲김종일⑧⑧
▲김종한⑥⑦
▲김순호⑥④
▲김창만⑦②
▲김창한⑥⑦
▲김충남⑥⑥
▲김태훈⑧⑨
▲김풍오⑦②
▲김한상⑧⑨
▲김한중⑦②
▲남승의⑦⑩
▲노태성⑧②
▲박관호⑧⑦
▲박문경⑥⑨
▲박상호⑤⑥
▲박신하⑥⑧
▲박이윤⑦②
▲박재만⑤②
▲박한희⑥①
▲배광준⑥⑤
▲서동호⑥③
▲서인원⑤⑥
▲서진구⑦⑦
▲성기영⑥③
▲성용현⑦⑦
▲손명기⑦⑥
▲송운덕⑦⑧
▲신갑성⑥⑦
▲신금진⑤⑥
▲신상엽⑥④
▲신선호⑥⑥
▲신재용⑥④
▲신중석⑧⑨
▲신치재⑥③
▲안두수⑥⑩
▲안승분⑥⑥
▲안치명⑥⑤
▲양욱부⑥⑦
▲어성순⑦③
▲왕동근⑥⑦
▲위삼규⑤⑩
▲유 풍⑥⑩
▲원종천⑧⑨
▲염홍주⑤⑦
▲양재형⑧⑦
▲안호준⑥④
▲안용석⑦⑩
▲안민주⑧⑧
▲심재승⑤⑧
▲신중호⑦⑥
▲신종철⑦④
▲신영수⑥④
▲신상준⑧⑨
▲신동기⑥⑤
▲신국법⑤⑥
▲송철조⑥③
▲송영우⑧⑩
▲손 욱⑥⑦
▲성연찬⑥⑩
▲성현엽⑤⑦
▲서정현⑦②
▲서우원⑥⑤
▲서동문⑥⑨
▲박향재⑦⑤
▲박찬민⑧⑧
▲박일재⑧②
▲박용문⑧⑤
▲박승빈⑥⑨
▲박병철⑥④
▲박규원⑦③
▲민보기⑧⑤
▲문영기⑦③
▲명정수⑦①
▲문우택⑥①
▲박신하⑥⑧
▲박상호⑤⑥
▲박문경⑥⑨
▲박관호⑧⑦
▲노태성⑧②
▲남승의⑦⑩
▲김한중⑦②
▲김한상⑧⑨
▲김풍오⑦②
▲김태훈⑧⑨
▲김충남⑥⑥
▲김창한⑥⑦
▲김창만⑦②
▲김순호⑥④
▲김종한⑥⑦
▲김종일⑧⑧
▲김종민⑥④
▲김정욱⑥⑧
▲김정배⑤⑤
▲김인상⑦①
▲김유규⑥③
▲김원섭⑤②
▲김용권⑧③
▲김영분⑥④
▲김승곤⑤⑤
▲김수광⑥③
▲김세기⑦①
▲김성환⑦①
▲김성배⑦②
▲김석진⑤②
▲김상선⑦①
▲김상식⑥④
▲김성대⑦⑦
▲김성한⑧⑤
▲김성환⑦⑩
▲김세진⑥⑨
▲김순모⑥①
▲김영국⑤⑥
▲김영홍⑥⑦
▲김용재⑥①
▲김유단⑧③
▲김은동⑦①
▲김정건⑦①
▲김정식⑤⑧
▲김정순⑧②
▲김종오⑤⑨
▲김종진⑥④
▲김준언⑦④
▲김진국⑥⑤
▲김진철⑥⑦
▲김진형⑥⑤
▲김진호⑥⑤
▲김지수⑥⑦
▲김지우⑧⑦
▲김지한⑧⑤
▲김지형⑧⑨
▲김지홍⑧⑧
▲김지환⑧⑥
▲김지훈⑧⑥

동창회 회원 명단

동창회 「年會費 납부」

◇ 農科大學

◇ 文理科大學

◇ 藥科大學

◇ 法科大學

◇ 師範大學

母校 소식

코넬大 호프만교수 강연

모교에서는 오는 8일 오전11시 기초과학교육기금 기원 강당에서 코넬大 R. 호프만교수를 초청, 제4회 서남 초청강좌를 개최한다.

지난 91년부터 노벨상 수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세계적인 碩學을 초빙, 재학생과 동문에게 진정한 학문의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보다 밝은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데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초청강좌 조직위가 모교안에 설립되었다.

서남초청강좌는 故李洋球씨를 추모하기 위한 東洋그룹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94학년도 入試 大學別 考査요강 발표

본고사 配點에 과목별 差等둬

出題難易度 응시자 水準으로

모교는 지난 17일, 14년만에 부활되는 94학년도 大學別考査 入試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母校가 이날 확정한 요강에 따르면

▲修學능력시험 과목별 가중치=人文系의 경우 총점 2배점중 본고사에 과학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감안 수리탐구영역에 가중치 20%를 적용 배점을 1백20점으로 하고, 언어영역 48점, 외국어영역 32점으로 조정했다.

自然系의 경우 본고사에 영어과목이 포함돼 있지 않는 점을 고려, 外國語(英語)영역에 2백%의 가중치를 두어 배점을 1백20점으로 하고 언어영역 30점, 수리탐구영역 50점으로 조정했다.

▲本考査 配點=人文系와 自然系의 과목별배점에 差等을 둔것은 해당계열의 과목별 중요도를 반영한 것으로 人文系의 경우 국어와 영어과목을 높게 배점했고 自然系는 수학과 국어과목을 높게 배점했다. 사범대학은 人性과 적성검사가 각각 50점씩 배점돼 과목별 배점비율은 같으나 총점을 3백점으로 했다.

▲出題방향=母校 白忠鉉교무처장은 『本考査는 응시자들의 修學능력을 측정키 위해 충분한 시간을 줄 예정이며 難易度는 서울大응시자의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系列別 本考査 配點表

구분 모집단위		필수 과목	배점	선택 과목	배점	선택요령	총점
인문계열 (사범계제외)		국어(논술) 영어 수학 Ⅰ	130 120 90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60	택1	400
자연계열 (사범계제외)		국어(논술) 수학 Ⅱ	130 150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20	택2	400
사범계	인문계	국어(논술) 영어 수학 Ⅰ	97.5 90 67.5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45	택1	300
	자연계	국어(논술) 수학 Ⅱ	97.5 1125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90	택2	300
예술 및 체육계열	미술대학	국어(논술)	60	한문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40	택1	100
	음악대학 작곡과 이론전공	영어 음악(이론)	100 100				200
	음악대학 국악과 이론전공	한문 음악(이론)	100 250				350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국어(논술) 수학 Ⅰ 영어 체육(이론)	30 30 30 10				100

※ 자연계열(사범계포함)선택은 물리 또는 화학은 반드시 포함되며 해당계열의 과 목별 중요도를 반영한 것이고 적성검사는 각각 50점씩 배정했다.

情報通信硏 건물起工

36억들여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모교에서는 지난달 6일 오전11시 정보통신행정연구소 신축공사 기공식이 관악캠퍼스 선경관앞동장에서 거행됐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36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천6백평규모로 건축되는 이 건물에는 강의실, 전산실, 교수연구실 그리고 2백명 수용규모의 국제회의장들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 건물의 특징은 인텔리전트빌딩으로 지어지는데 빌딩자동화시스템, 사무자동화시스템, 첨단영상장치, 근거리통신망을 구비하게 되며 완공되면 정보통신행정연구소와 행정대학원이 입주하게 된다.

發展기금 1천만원

黃宗屹교수·金秉麟동문, 出捐

최근 모교발전기금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工大 黃宗屹(조선해양공학)교수는 본인의 정년퇴임기념으로 도서기금 1천만원을 발전기금에 기탁했다. 발전기금에서는 同기금을 특정 기금계정으로 별도관리 운영된다.

또한 前 환경대학원동창회장이며 미라보건설사장인 金秉麟(71년 환대원졸)동문도 발전기금으로 1천만원을 출연했다.

張楠基(60년 師大졸)사범대학 교수는 생물교육과 장학금으로 2백만원을 출연했다.

오전 8시 授業편성 94년 1학기부터 부분시행

모교에 따르면 1994년 1학기부터 오전 8시에 강의를 시작하는 수업편성방안이 부분적으로 시행된다.

이 방안은 오전 8시 시작 강의를 신청한 교수에 한해서만 실시되는데, 확대실시 여부는 이번 시행결과를 평가한 후 결정된다.

除籍生 재입학 허가

特例규정따라 1백66명

모교가 지난 8월 13일 개정 공포한 「본교 재입학에 따른 特例規定」에 따라 재입학이 허용된 73년 3월부터 93년 2월사이의 학생운동 관련 除籍生 1백66명이 이번 학기에 재입학 허가되었다.

大學院入試 11월 27일

모교의 94학년도 대학원 입학시험이 오는 11월 27일(土) 각대학과 특수대학원에서 실시된다.

입학지원서교부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원서접수는 同月 13일부터 17일까지이다.

放送시설 개선키로

교육환경 개선위해

최근 모교 기술과에서는 중앙전산원과 협력, 당초 방송설비가 없는 강의실에 시설을 설치하고 방송시설 노후로 강의진행이 어려운 3개 대형강의실을 개수키로 했다.

방송시설 개수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으로 반영시켜 교육환경개선에 심혈을 쏟고 있는 모교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현재 설치된 대형강의실의 핸드형 마이크를 타이마이크로 전량 교체시킬 계획을 아울러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語學硏究所 이전

1백37동 新棟에

지난 16일 語學硏究所가 체육관뒷편 신축건물인 1백37동으로 이전하고 그자리엔 화내자치공간으로 동아리연합회와 농생대 학생회, 그리고 대학원 자치회가 사용하게 됐다.

한편 同一系列에 限해 적용되던 第2志望制를 동일대학내의 동일계열로 축소허용키로 한 것은 수험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관계없이 합격위주로 지원하던 종래의 경향을 지양하려한 것으로 보인다.

天然物科硏서 출품

데이터 베이스쇼에

모교 天然物科學硏究所(소장 張日武교수)는 전통약물 데이터베이스를 지난 22일부터 나흘간 종합전시장에서 열린 서울 국제데이터베이스쇼에 출품했다.

과학기술처의 지원하에 구축중인 이 데이터베이스는 ▲각종처방문헌 ▲천연물 성분부적 ▲양용식물 생약등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연계시킨 시스템이다.